

중기 중대재해 예방...광주시, 산업안전 우수기업 인증 지원

근로자 50인 미만 민간사업장 10곳 선정...17~18일 신청 접수 작업환경 개선자금·경영안정자금 우대 지원·현판 수여 등 혜택

광주시가 안전 인식 강화와 안전한 근로환경 조성을 목표로 산업안전보건 우수기업 인증 사업을 강화한다.

광주시는 4일 "소규모 민간사업장의 산업안전 근로 환경 조성을 위해 '2024년 산업안전보건 우수기업 인증지원 사업'을 실시한다"고 4일 밝혔다. 대상은 공고일 기준 광주시에 소재하고 있는 근로자수 50인 미만의 중소기업이다.

광주시는 신청 기업을 대상으로 업체별 산업재해 발생현황, 산재예방 관련 교육 이수, 위험성평가 실시 적절도, 근로조건 개선 등의 기준을 평가한다. 특히 근로환경 개선을 위한 근로자 의견취취절차 반영 여부, 고위험 5대 업종 기업 등 가점 항목을 포함해 총 10개 기업을 선정할 예정이다.

우수기업으로 선정되면 사업장 작업환경 개선자금 지원, 산업안전보건 우수기업 인증서 및 현판 수여, 중소기업육성 경영안정자금 우대 지원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 받게 된다.

개선자금은 근로자 휴게실을 비롯한 작업환경 및 시설 개선, 안전보건 관련 장비 구입, 산업재해예방 교육 실시 등으로 활용할 수 있다.

산업안전보건 우수기업 인증지원을 희망하는 기업은 오는 17~18일 광주시 누리집 고시공고를 참고해 방문 또는 우편으로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광주시 안전정책관 중대재해예방팀(062-613-4943)에서 확인할 수 있다.

윤건열 광주시 안전정책관은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으로 확대됨에 따라 지역 소규모 민간사업장에 대해서도 중대재해 및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다"면서 "근로자의 안전·보건 확보와 산업 안전 인식 강화, 안전한 근로 환경 확대 등을 목표로 행정

력을 집중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광주시는 행정안전부 주관 '2023년 대한민국 안전대전환 집중안전점검' 실적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국무총리단체 표창을 수상했다.

광주시는 ▲기관장 현장 참여 등 높은 관심도 ▲시민단체·유관기관과 안전 점검 수행에 대한 협업도 ▲급경사지 등 재해위험시설에 대한 드론·광섬유 등 첨단기술 활용 실적 등에서 높은 평가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2015년부터 해마다 실시하는 '대한민국 안전대전환 집중안전점검(옛 국가안전대진단)'은 행정안전부가 주관하는 범국가적 재난예방 정책으로, 일정 기간을 정해 사회 전반의 안전관리 실태를 민·관이 합동 점검한다.

광주시는 오는 22일부터 6월 21일까지 61일동안 시, 자치구, 공사·공단 등 20개 기관이 참여하는 가운데 '2024년 집중안전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광주시는 올해 집중안전점검 기간에 노후·사고위험 시설 등 총 761개소를 점검한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강기정(가운데) 광주시장은 4일 시청 비즈니스룸에서 '대한민국 안전대전환 2023년 집중안전점검' 실적평가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국무총리단체 표창장을 받은 직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광주시 제공>

광주 제1공공하수처리장 효율화 방안 마련

하수처리시설 등 기술 진단 방류수역 수질관리 강화 추진

광주시가 제1공공하수처리장 효율화 방안 마련에 나섰다.

4일 광주시에 따르면 오는 11일부터 서구 유덕동 제1공공하수처리장에 대한 기술진단을 실시한다. 기술진단은 하수도법에 따라 전문기관을 통해 5년마다 시행하며 하수 유입오염원들의 특성조사, 시설 및 운영에 대한 진단, 시설개선 및 효율화 방안, 유지관리 등 하수처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을 파악해 5개년 계획으로 개선대책을 수립한다.

이번 기술진단은 12월 말까지 하수처리시설 및 분뇨처리시설 전반에 대해 진행된다. 광주시는 기술진단을 통해 제1하수처리장 공정 효율화와 시설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 하수처리 공정과 시설 관리 실태를 정밀하게 진단하고, 처리효율을 개선해 방류수역 수질관리에 대처한다는 방침이다.

광주시는 2021~2022년 제1하수처리장 및 분뇨처리장에 대한 악취기술진단을 실시한 결과, 노후된 악취저감시설 전반에 대한 개선 및 교체 필요성이 제기됐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올해 영산강유역환경청과 협업해 국비 29억원을 확보(총사업비 69억원)하고, 2025년까지 악취 정비사업을 완료할 계획이다. 시는 해당 사업이 완료되면 악취로 인한 인근 주민의 불편도 상당부분 해결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일곤 광주시 물관리정책과장은 "기술진단 결과를 토대로 하수처리시설을 개선해 깨끗하고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과 하천 수질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고흥 우주해양리조트 특구 일부 토지거래 허가구역 해제

전남도가 4일 고흥 우주해양리조트 특구로 묶인 영남면 남일리 일원 1.18km를 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 해제했다.

고흥 우주해양리조트 특구는 고흥 영남면 남일리 115만㎡로, 지난 2009년 숙박시설과 골프장·짚트랙 등 관광단지를 조성하기 위해 지정됐다.

하지만 14년 동안 민간사업자의 토지 매입률이 14%에 그치며 표류하고 있는 상태다.

이에 따라 전남도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해, 토지매입 부진에 따른 사업 지연으로 특구 지정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워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특구 지정이 해제된 일부 지역을 토지거래 허

가구역에서 해제하기로 했다.

이번에 해제된 영남면 남일리 지역은 앞으로 고흥군의 토지거래 허가 없이 자유롭게 토지 거래가 가능하고, 기존에 허가받아 취득한 토지의 이용 의무가 없어진다.

김승재 전남도 토지관리과장은 "이번 토지거래 허가구역 해제로 주민의 재산권 행사에 불편함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담양·보성·완도 노후 관광지 재생사업 선정

전남도, 관광객 편의 증진

전남도는 2024 노후 관광지 재생사업 공모를 통해 담양·보성·완도 등 3개 군을 선정했다.

노후관광지 재생사업은 주차장, 화장실 등 10년 이상 노후 관광지의 시설의 보수뿐 아니라 독특한 관광지가 되도록 새로운 콘텐츠 보강, 관광 약자 배려를 위한 무장애(BARRIER-FREE)시설 설치 등을 추진하는 전남도 자체 시책 사업이다. 2018년부터 14개 노후관광지에 243억원을 투입했다.

이번 노후 관광지 재생사업은 관광학과 교수 등 외부 전문가 3명을 평가단으로 위촉해 노후시설과 관광 안전시설 보수, 주변 자연환경과 어울리는 시설 설치 및 콘텐츠 보강을 중점으로 서류와 현장평가를 거쳐 선정했다.

사업 대상지로 선정된 보성 울포 해수욕장 관광지는 아스팔트 차도를 보행자 전용도로 전환하고,

우기 시 배수가 원활하지 못한 주차장을 정비하는 등 관광객 편의에 중점을 둔 새 단장한다.

담양 담양호 관광지엔 건립 예정인 국제 명상센터와 연계해 관광객 체류 시간을 늘려주는 야간 경관 사업과 관광지 주변에 어지럽게 설치된 전선 지중화 사업을 추진한다. 완도 명사십리 관광지엔 인위적 시설을 배제하고, 본격 개관한 해양치유센터 등을 방문하는 관광객이 불편 없이 깨끗한 백사장과 바다를 즐기도록 무장애 시설과 포토존 등을 설치한다.

이석호 전남도 관광개발과장은 "이번 노후관광지 재생사업은 노후시설을 개보수해 관광객이 다시 찾고 싶도록 하는 방법을 고민하는 것에서 출발했다"며 "가급적 인위적 시설물은 지양하고 전남의 아름다운 자연환경과 어울리도록 시설 및 콘텐츠를 보강하는데 주력하겠다"고 말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전남도, 청년 농업인 874명 정착 돕는다

역대 최다 선발...육성자금·영농기술교육 등 지원

전남도가 미래 전남 농업을 이룰 '청년창업형 후계농업경영인' 740명과 '후계농업경영인' 134명에 대한 선발 절차를 마치고 기술·경영교육 및 컨설팅 등 안정적 정착을 위한 본격 지원에 나선다. 지난해보다 126명 늘어난 규모다.

청년후계농 사업 대상은 전남에 주소를 둔 18~39세 청년으로, 독립 영농경력 3년 이하이며 중위 소득 120% 이하인 자다. 대상자에게는 3년 내 월 최대 110만원의 영농정착지원금과 후계농업경영인 육성자금, 농지은행 농지 임대, 영농기술교육 등을 지원한다. 후계농업경영인은 18~49세로 독립경력 10년 미만의 농업인을 대상으로 서면 평가 및 전문평가기관의 검증 등을 통해 선발됐다.

세대당 최대 5억원을 5년 거치 20년 원금균등 분할상환, 연리 1.5%(고정금리) 조건으로 농지, 농기계 구입, 시설·축산 분야 설치비용을 융자해 준다.

전남도는 청년후계농, 후계농업경영인 육성 사업을 스마트 청년농업인 1만 명 육성과 연계해 추

진하고 있다. 젊고 유능한 인재의 농업 분야 진출을 유도하는 선순환 체계를 구축하고, 농가 경영주의 고령화 추세를 완화하는 등 농업 인력 구조 개선에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

강하춘 전남도 농업정책과장은 "많은 청년이 농촌에서 안정적으로 농업을 유지하고 체계적으로 성장하도록 진입부터 소득 창출 등 성장·정착까지 단계별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전남도가 지난해 선발한 청년 후계농 중 607명, 일반후계농 중 141명이 지역에 정착해 이 사업이 농촌 활력 증진은 물론 농업·농촌의 지속가능성을 유지하는 데 크게 기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광주일보 72년
호남 최대 부수
열독률 호남 1위

자연 ❤물 좋고! 영광 ❤반하고!

2024 영광 방문의 해

제63회 The 63rd Jeollanamdo Sports Festival
전라남도체육대회
2024. 4. 17.(화)~4. 20.(목) 4일간 / 영광스포티움 체육경기장

제32회 The 32nd Jeollanamdo Inclusive Sports Festival for the disabled
전라남도장애인체육대회
2024. 4. 29.(목)~5. 1.(화) 3일간 / 영광스포티움 체육경기장

2024 영광 범섬포안제
2024. 6. 7.(토)~6. 10.(화) 4일간 / 영광포안제관광교육관 일원

영광 봄맞이 축제
2024. 9. 13.(목)~9. 22.(목) 10일간 / 불림사관광지 일원

제10회 영광할머니 어울마당
2024. 5. 10.(목)~5. 11.(금) 2일간 / 관남면 지내물 놀이공원 일원

영광 e-모빌리티 엑스포
2024. 10. 17.(목)~10. 20.(일) 4일간 / 태미 전기자동차 산업단지 일원

역사가 살아 숨쉬고 문화가 꽃피는 이곳!
영광으로 오세요!